



김경문 감독 1000승 에이스 폰세 14연승

함께 쓰는 '기록 행진'... 한화 행복한 동행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탈삼진 8개를 속아 내며 무실점 투구를 펼친 폰세가 기뻐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

4연패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의미 있는 기록을 향해 다시 달려간다.

한화는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5-0으로 이겼다.

최근 3연패를 당하며 2위 LG 트윈스에 2경기 차로 쫓기던 한화는 만일 이날 졌더라면 4월 초 이후 석 달 만에 4연패를 당해 LG에 1경기 차로 압박당할 뻔했다.

특히 이날 한화는 에이스 코드 폰세가 6이닝을 탈삼진 8개를 뺏어내며 무실점으로 막아 건재를 알린 점도 반가웠다.

폰세는 지난달 24일 두산 베어스전에 나와 6이



13연승 질주 폰세 1승만 더
정민태·노예시와 타이 도전
김 감독 1000승, 4승 모자라
김용·김성근만 이룬 대업
둘다 5일 kt전서 축포 예약

닝 70구만 던지고 내려갔는데 당시 어깨 통증을 호소해 주변의 우려가 컸다.

지난달 30일 삼성을 상대로 1회 2사 12루, 3회에는 무사 13루 등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하지 않은 폰세는 개막 후 13연승을 이어 갔다.

KBO리그 투수 개막 후 최다 연승 기록은 2003년 정민태, 2017년 헥터 노예시가 달성한 14연승이다.

폰세가 다음 등판에서 패하지 않고 이기면 이 부문 타이 기록을 세울 수 있다.

김경문 한화 감독도 의미 있는 이정표에 오르기 직전이다.

지난달 30일 삼성전 승리로 지난해

한화 지휘봉을 잡은 이후 100승을 채운 김경문 감독은 앞으로 4승을 더 하면 통산 감독 1000승을 달성한다.

2004년 두산 감독으로 프로 사령탑이 된 김경문 감독은 지난달 30일 경기까지 통산 996승 34무 855패를 기록했다.

KBO리그 '1000승 감독'은 김용(1554승 68무 1288패), 김성근(1388승 60무 1203패) 감독 두 명뿐이다.

빠르면 3일까지 KIA 타이거즈와 3연전을 다 이길 경우 1000승을 채울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승리를 놓치면 김경문 감독의 1000승도 다음 주 초 kt전으로 넘어간다.

개막전 선발로 kt전에 등판했던 폰세가 다음 주 초 kt전에 나오면 벌써 kt 상대 5번째 등판이 된다.

폰세는 삼성이나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

로는 1경기만 던졌지만, 유독 kt전에 자주 걸린다. kt전 4회 등판 다음으로는 KIA와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를 3번씩 상대했다.

폰세는 kt와 앞선 4경기에서 3승, 평균자책점 0.75로 매우 강했다.

폰세는 30일 경기를 마치고 연승 기록에 대해 "영광스럽다"면서도 "개인 기록에 신경 쓰기보다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 역시 한화 부임 후 100승을 두고 "매 경기 집중하다 보니 100승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현장에서 코치·선수·스태프들 모두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 모두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보다 팀 성적을 우선하겠다는 말이지만, 개인이 승리를 쌓으면 팀 승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도 좋고 팀도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스카이다이래연합뉴스



김경문(왼쪽 두 번째) 감독의 한화 부임 후 100승을 축하해 주는 박종태(왼쪽) 대표이사사와 코치, 선수들.

'시즌 첫 승' 다르빗슈 미·일 통산 204승 新

메츠전서 70이닝 무실점 호투 또 124승 박찬호 기록도 넘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는 오른팔 투수 다르빗슈 유(38·시진)가 미·일 통산 최다 승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다르빗슈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홈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 70이닝 2피안타 무사자구 7탈삼진 무실점의 흠 잡을 곳 없는 투구를 펼쳤다.

다르빗슈의 호투를 앞세운 샌디에이고는 5-0으로 메츠를 잡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순위 경쟁을 이어갔다.

60승 49패를 거둔 샌디에이고는 지구 1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63승 45패)에 3.5경기 뒤처진 2위다.

팔꿈치 부상 탓에 지난달 초에야 마운드에 돌아온 다르빗슈는 올 시즌 5번째 등판에서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빅리그 통산 111승을 수확한 그는 일본에서 거둔 93승을 더해 204승으로 구로다 히로키(MLB 79승, 일본 124승)의 미·일 통산 203승을 넘는 이 부문 신 기록을 세웠다.

다르빗슈가 도전하는 다음 목표는 박찬호가 보유한 아시아 투수 MLB 최다 승(124승)이다.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한원재 지음 | 31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신문사 추천도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 번의 탈북·세 번의 체포... 中 연길 감옥·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 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재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녘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태영호(전 북한외교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닥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이영환(전한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노예 공화국 북조선 탈출